

6월 도내 제조업 상황 '좋지 않아'

한은,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제조업 업황 BSI 전월보다 9p 하락 비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2p 상승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29일 도내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본부는 도내 기업의 최근 경기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을 파악하여 경제정책의 수립·운용

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목적으로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조사를 했다. 제조업의 경우는 전북지역 2018년 6월 제조업 업황 BSI는 61로 전월(70)보다 9p 하락, 7월 업황전망

BSI(59)는 전월에 비해 12p 하락했다. 또한 전국 2018년 6월 제조업 업황 BSI는 80으로 전월대비 2p 상승, 7월 업황전망 BSI(80)은 전월에 비해 1p 상승으로 나타났다. 6월중 전북지역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33.2%), 인력난·인건비 상승(14.6%), 불확실한 경제상황(9.5%) 등이 상위

6월 비제조업 업황 BSI는 61로 전월(59)보다 2p 상승, 7월 업황전망 BSI(64)도 전월에 비해 7p 상승했다. 아울러, 전국 2018년 6월 비제조업 업황 BSI는 80으로 전월보다 4p 하락, 7월 업황전망 BSI(80)도 전월에 비해 5p 하락했다. 6월중 전북지역 비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으로는 인력난·인건비 상승(24.1%), 내수부진(19.1%), 경쟁심화(12.0%) 등이 상위



NH농협생명전북총국 상관농협 '모두레 어린이 경제교실' 운영

농협생명 전북총국은 지난 25일 상관농협과 함께 남관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 '모두레-어린이 경제·금융교실'을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모두레'는 '모두(함께, 같이)'와 '누레(상부상조 조직)'의 합성어로 농협이 중시, '같이의 가치'와 보람이 내재하고 있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의미. '모두레 어린이 경제·금융교실'을 통해 어린이들은 △돈의 개념·역할·발달 과정 △용돈과 소득 △저축과 보험 △농협과 협동조합의 이해 △합작 △물물교환 게임 △세계 화폐게임 △용돈보드 게임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학습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NH농협생명전북총국 지광수 총국장은 "모두레 어린이 경제·금융교실은 농촌지역 꿈나무들을 위한 NH농협생명의 중요한 사회공헌활동. 그만큼 '교육기획부터 교안·사내강사 육성·결과 피드백'까지 심혈을 기울였다"며 "매년 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교육 참여 어린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하림 '상생경영 실천 잘하고 있다'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양호' 등급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농가와 협력사간 상생경영 실천을 잘하고 있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첫 평가를 받은 (주)하림은 지난 27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보통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기업들은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평가 결과가 '미흡'이나 '보통' 등급을 대부분 받고 있지만 이번 하림의 '양호' 평가는 그동안의 농가와 협력사간 상생추진을 잘 일궈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올해 첫 평가를 받은 (주)하림은 지난 27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주)하림은 지난 2017년 9월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12월까지 4개월 동안 농가 표준계약서와 하도급 표준 계약서 이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실천했다. 국내 닭고기 기업 가운데 최초이며 이번 평가로 한 단계 높은 상생경영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

하고 하도급 내부심의 위원회 운영, 동반성장팀 조직구성 등을 통해 법외반예방 및 법준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정성 있게 펼쳐가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장 신·증축 지원과 상생금융 자금 지원, 평당 생산량 증대 프로그램 가동 등을 통해 지난 2017년 농가 연평균 소득을 1억 9100만원까지 끌어 올리는 등 동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08년부터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번상비 탕감, 시설 처분 보상금 차액 지원, 최소사육비 지급, 가축공제보험 일괄 가입 지원 등을 통해 도산농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상생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前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NH저축은행 전무이사 취임

농협금융지주는 29일 최용구 前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을 NH저축은행 신입 전무이사로 선임했다. NH저축은행 신입 전무이사는 (전북순창)출신, 전주고·전북대를 졸업했고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장, 전북경영지원 부장, 전북경제사업



부장, 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NH저축은행 신입 전무이사는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덕으로, 농협은행 전북본부

장 재직 시 '현장중심, 일과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 받았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코레일 전북본부, 전국 최초 공공택시 콜 서비스 제공

기존 서비스 운행범위 한정 철도역까지 운행범위 확대

코레일 전북본부는 교통오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공택시 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철도역 공공택시 콜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시 콜 서비스는 공공택시 대상마을 중 임실군의 경우 임실역 7개 마을(신기, 두심, 망정, 성전, 중사태, 피암, 대관)과 오수역 6개 마을(새말, 중촌, 성문안, 산막, 사월, 신기), 정읍시는 신태인역(피동) 1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콜 서비스는 기존 교통오지마을에서 재래시장, 버스터미널 등으로 운행범위가 한정되었던 공공택시 서비스를 철도역까지 운행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해당마을 주민의 철도이용 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당마을 주민이 철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역에서 열차와 공공

택시의 이용 및 예약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고통으로 ARS(1544-7788)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웠던 교통오지 주민들이 철도 승차권 예약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역에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준 전북본부장은 "전북권역 교통오지 주민들의 철도이용 기회 확대 및 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 지역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전북본부는 또한 철도역 공공택시 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 고객(최초 1회)을 대상으로 7월 한 달간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한다. 철도역 공공택시 콜 서비스 이용은 임실역(063-249-7225), 오수역(063-249-7230) 신태인역(063-700-520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북농협지역본부 전북농협, 스쿨팜 식체험·금융교실 실시

전북농협지역본부 전북농협은 도시 어린이들에게 농업기회를 알리기 위해 스쿨팜 사업을 진행했다. 그 일환으로 6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전주시익산시,군산시) 36개교 각 학교 교실에서 식체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28일에는 익산 이리북초(교장 한춘남) 5학년 학생 50여 명 농협전북지역본부로 초대 '식생활 개선교육, 금융체험'을 실시했다. 또한, 도시 초등생들이 무더운 여름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를 수확, 요리체험으로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다. 아울러, 학교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오이, 토마토를 활용 브리또 만들기 체험, 실제 은행의 모습 구현, 청소년 금융교육센터 1일 농업 직원이 되어

(통장개설, 동전포장)의 시간을 갖고 금과 견학,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뜻 깊은 체험 시간을 가졌다. 전북농협지역본부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어린이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농협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전달했다. /김영태 기자

7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4.2% ↑ 가구당 평균 317원 인상

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가구당 월 평균 317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도시가스 평균 요금이 4.2% 인상된다고 밝혔다. 용도별로 보면 주택용이 4.0%, 산업용은 4.6%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7~8월에 가구당 가스 요금은 월 평균 3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7~8월에 도입 예정인 LNG 수입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영향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변동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도시가스 평균 요금은 1일부터 현행 13.9943원/MJ에서 0.5877원/MJ 인상된 14.5820원/MJ로 조정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